

桂芳山, 그 無人之境

崔 光 烈

1. 사회개발과 희생의 歷史

88년 10월초의 3연휴일을 맞아 일행은 아침8시에 동마장동 터미널에 모여, 9시의 강원도 下珍富행의 직행버스를 탔다. 일행5명은 모두 60대초와 50대중반의 한사람이요, 평소 일요등산을 함께 즐기던 멤버들이라 의기투합은 잘 되었다. 차가 中部고속도로로 진입하여 가을수확이 한창인 도로변을 질주할 동안, 차창에 비치는 풍경은 1년전 11월초보다도 개발의 발전을 볼 수가 있었으며, 활기가 있었다. 문득 그 어느 마을에고 한번 이주를 하여 몇년이고 살고 싶은 심정이다. 이것은 나의 해묵은 자연복귀의 종교적 소원이기도 하다.

버스가 原州북변의 <새말>갈림길에서부터 평창군으로 이르는 높은 지대를 지나며, 10년쯤 전에 자주 강릉, 동해로 다니던 때의 주변정경을 되새겨 보면서 사회변화와 역사 그리고 그에 얽힌 인간사의 우여곡절을 생각하다가 희생자의 운명을 되씹어보았다. 그때 마침 일제때 활약한 소설가 李孝石紀念碑와 그를 추모하는 향토인사들의 모임을 저만치 바라보며, 새삼 이곳의 메밀꽃—봄의 꽃밭을 생각해 보았다.

一行은 12시전에 하진부읍에 도착하여 그곳 터미널에 내렸다. 이곳은 주로 오대산, 월정사로 가는 등산객이 연휴를 맞아 크게 붐비는 곳이요, 한편 겨울에는 횡계스키장으로 가는 교통요지로 이미 관광교통요지로 시장도 크게 형성되어 있었으나, 정거장시설도, 주변 시장상가도 구태의연하고, 잡다하며, 상인들의 상행위도, 모두가 불품없는 날림과 동만벌면 된다는 一次的생존분위기가 고작이며, 운송회사

는 손님들을 위한 휴게소 하나도 만들지 않고 있었다. 우리는 한시간이상 두시간가까운 지루한 시간을 기둘러 거꾸로 하진부에서 內舍로 가는 완행버스를 타고, 15분후에 <신약수터>로 진입하는 길목에서 내려, 35분을 걸어서 신약수터에 도착하여, 늦은 점심을 했다. 이곳 약수는 각종 약성분이 있는 광천수(鑛泉水)였다.

오후5시「방아다리약수터」도착

일행은 감자부침을 청해 함께 식사를 하고, 다시 새로 개척하고 있는 고개의 큰 도로를 따라 역시 35분쯤 후에 <방아다리 약수터>에 도착한 것이 오후 5시경이었다. 우리가 지나온 도로는 아직 정식개통이 안된 곳이라 몰랐었는데, 이곳 방아다리 약수터에는 진부에서 五台山서쪽으로 개통되어 있는 대로를 거쳐 들어온 많은 자가용, 봉고, 차량들이 많이 들어와 사람들이 꽤 붐비고 있었다. 이곳 약수터는 일제시대에 이미 일본인들이 개발한 약수터로 접객건물들은 낡은 일제때 건물과 그후에 덧붙인 건물이 너댓채 있어, 성수기는 하루에 1백정도의 손님을 수용한다고 했다. 교통이 불편한 곳이어서 일반관광객이 약수터만을 목적으로 오기에는 어색한 곳이 었으나, 지금은 자기 차편의 이용자들도 부쩍 늘어난 시대임을 실감케 했다.

一行은 저녁을 손수 지어서 나름대로 피로를 모르는체 일배주도 깃들이고 늦게까지 즐기다가 잠이 들었다. 이튿날 아침은 약식으로 먹어치우고 8시에 출발했다.

2. 無人之境의 능선길 7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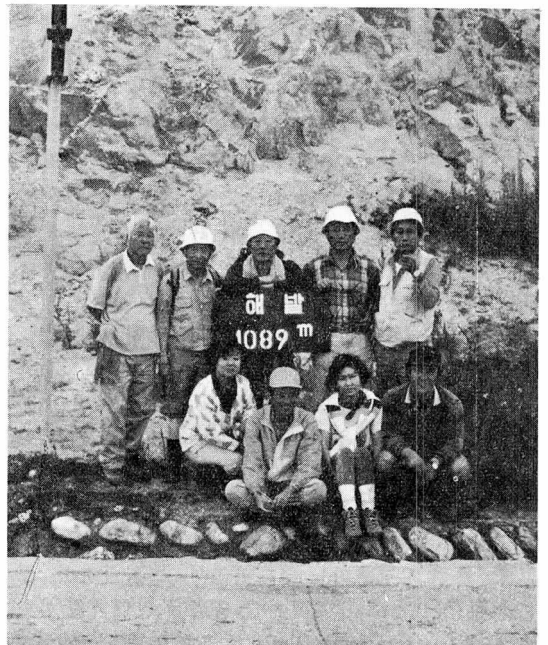
10월2일. 아침8시에 방아다리를 출발한 후 15분후에 새로 개척한 넓은 도로가 오대산 서쪽으로 월정사, 진부로 통하는 큰길에 있는 대리목에서 동북쪽으로 계곡흐름을 따라 걷기시작했다. 이길은 드물게 다니는 등산객이나 약초꾼들의 좁은 길로 내쳐 계방산 동쪽 줄기의 끝까지 계곡을 따라 완만한 골짜기를 한시간반이나 걸어갔다. 그중의 중도에 서북쪽으로 오르는 길이 있었으나 일행은 그곳을 지나쳐 다시 30분이나 가파른 막다른 산길을 올라서 10시경에 겨우 능선의 고개길에 올랐다. 여기까지는 전혀 사람그림자도 볼 수 없는 적막하고 고적한 山行이었다. 여기가 약 900m의 능선이다. 여기서 다시 서쪽으로 오르락내리락 1시간30분의 능선길, 뱃돼지가 지표의 군데군데를 파헤쳐놓은 능선을 뛰다시피 걷고 또 걸었다. 도중에 1천능선의 붉은 단풍은 투명한 공기와 한없이 맑은 햇살에 진홍으로 물들어 있어 붉은 유리 조각처럼 빨간 빛을 발하고 꿰뚫어 보일만큼 곱게 보였다. 아마 이 지대의 무공해가 무인지경의 그 자연 본래의 순수성을 지니고 있는지, 어쩌면 자연생성의 원초의 빛갈갈기도 했다.

이 능선의 끝난데서 비로소 일행은 다시 30분을 거의 70~80도의 급경사의 길을 올라서 11시40분에 1천4백의 정상에 올라섰다. 그야말로 힘겨운 일이었다. 이 정상에서 비로소 동쪽으로 오대산과 남쪽으로는 먼 아지랑이와 구름사이로 평창군과 정선군계에 있는 산봉들을 볼 수가 있었다. 이곳에서는 언제, 누군가에 의해 버려진 도시락봉지 등으로 人跡을 볼 수가 있었으며, 다시 서북쪽으로 1천5백m의 능선을 세게나 오르내리며, 겨우 길이 트여있는 관목숲길을 헤치고 또는 고산식물이 바위밭길 위에 자라나 있는 풀밭길을 헤치고, 하늘에는 무한히 맑은 코발트빛의 창공에서 내려쬐는 햇살, 햇살에 젖으면서 걷고 또 걸어서 넷째, 다섯째에 비로소 1577m의 계방산 정수리에 도착한 것이 오후 2시. 그러니까 꼭 6시간만의 일이다.

이 정상에서 멀고 가까운 주변의 전망을 하면서 동으로는 구름속의 五台山, 황병산, 노인봉을 북쪽으로는 설악산, 서남으로는 낮은 연봉을 쳐다보고 얘기를 나누었다. 이때 일행중의 장명섭사장이 소지한 소형라디오에서 올림픽에서 한국이 4위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갈채를 외치고 건배주를 들기도 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때 또한 사람의 소리가 나



△ 1,577m 계방산 정상에서 前列 金·張·朴 後列 崔·金 一行



△해발 1,089m 표지판이 있는 은두령 마루턱에서 後列左로부터 筆者: 朴·金·張·金씨

더니 이윽고 젊은 남녀 두쌍이 우리가 거처은 쪽에서 하나, 둘 나타냈다. 그들 넷이 도착하고 보니 어제 밤에 방아다리 약수터 여인숙에서 함께 머문 친구들이라, 그들과 함께 즐기다가 사진도 찍고, 또한 같이 하산을 했다. 그런데 이 계방산정은 공기가 찼다. 뿐더러 주위에는 계곡코오스가 전혀 없으며 하산길도 서북쪽으로 나 있는 외가닥길로 극히 풍취가 없고, 물을 공급받을만한 곳도 없는 극히 무미건조한 산임을 알고, 오로지 익숙한 등산가들이 한번은 지나가 볼 그런 산세를 보여주고 있을 뿐이었다.

3. 太陽의 햇살아래서

필자는 10년만의 고등산을 해서 내리막길도 계속한시간을 요하는 빠른 걸음에 지칠만큼 거의 기계적으로 다리를 움직였다. 중간에 모두 간이음식을 먹기는 했으나 나는 물외에는 거의 식사를 하지 않고 오후 4시경에야 비로소 은두령(20km지점)에 도착했다.

이 은두령은 진부군과 홍천군의 경계요, 해발 1천 m 가 넘는 버스도로가 나 있는 마루턱에 공지(휴게소)가 있고, 차량들의 왕래가 있는 곳이었다. 이곳에서 일행은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두쌍의 남녀와 헤어지고 우리 일행은 지나가는 덩프카에 편승하여 포장이 잘 된 도로를 구비구비 돌아서 內面 邑까지 갔다. 內面 邑에 닿은 것이 6시. 이곳 내면 邑은 농산물의 집산지라 다방이 여섯이나 있다고 하며, 시설도 서술다방 못지 않게 번지르렀다. 이를테면 富村이다. 우리는 7시가 지나서 버스를 타고, 五台山, 北邊에서 襄陽으로 통하는 비포장도로를 달려 20분만에 三峯약수터 入口에서 내렸다. 꼭 1시간동안 6km나 되는 길을 이미 해가 저물고 길도중에 7개나 되는 개울의 돌다리를 건너다 필자는 결국 물에 빠져 등산화를 그대로 신은채 다음 개울도 아예 물속을 걸었다. 일행중에 박종성씨가 전등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그나마 도움이 될 뿐이었다. 우리가 지나는 도로 아래는 계곡천의 큰 물줄기가 흐르는 물소리만 요란할뿐 일행은 그야말로 침묵의 행군이었다.

一行이 약수터의 여관에 닿은 것이 8시를 지나서였고, 저녁을 시켜서 일배주를 곁들이고 곧 잠을 자기로 했으나 나는 양말을 여관집 아궁이의 장작불에 말려 겨우 물기를 없애고, 잠을 자기로 했다. 약수터는 上·中·下의 3泉이 있으며, 그 성분은 20종에 가

까운 뛰어난 광천약수로 李朝중기에 이미 알려진 곳 이요, 일제때 수질검사를 한 표본 설명이 게시되어 있었다.

우리는 세곳의 약수터를 찾아, 지금 뽕뽕한 물맛을 흠뻑 마시고, 수통에도 넣었다. 3일아침 맑고 차가운 공기속에서 세수를 하고, 아침을 시켜 먹고 8시가 되어 다시 들어왔던 길을 따라 걸었다. 어제밤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았던 계곡하천은 꽤 넓고 곳곳에 반석과 굴곡의 경치를 즐기며, 또한 7개의 개울의 돌다리도 밝은 시야에서는 쉽게 건널수가 있어서 부단히 걸어서 9시경에는 다시 삼봉약수터 入口의 표지판 앞에 서게 되었다. 그런데 바로 이곳은 삼봉계곡하천과 동쪽 五台山北邊에서 시작된 큰 하천이 맞닿는 곳으로 농지와 山壁사이의 암석과 깊은 물줄기의 수세가 훌륭한 경관을 이루고 있는 능히 명승지라 할만 한 곳이었다. 차를 기다리며 이곳 농부들과 얘기를 나누며 농촌—강원도 오지의 民生은 그런대로 생활의 여유는 있었으나, 의료시설, 문화시설은 거의 전무하고, 읍소재지에도 최소의 교육시설이 있을 뿐이요, 가옥들은 중정도의 모습이었다. 이때는 채소값(무우·배추)이 폭락한 때라, 배추는 그대로 방치되어 썩히고 있었다.

일행은 內面 邑을 거쳐 洪川까지 2시간을 비포장도로의 버스에 시달리며 12시경에 도착하여, 이곳에서 막국수로 알려진 중심가의 식당에서 비로소 음식과 술을 포식하고 귀로의 차관에 올랐다. 이 洪川 邑만 해도 교통요지로 꽤 발달되어 흥청거리는 도시였고, 그 외곽을 흐르는 北漢江의 上流河川은 큰 강줄기를 이루고 있었다. 一行은 2시경에 고속버스를 타고, 楊平을 거쳐, 서울 上鳳터미널에서 내린 것이 오후 4시경이었다. 참으로 고단하고 힘든 2박3일이었으나, 詩人 金大成, 김용서사장도 모두 건각을 자랑하면서 제각기 자기 등우리를 찾아 뿔뿔이 헤어져 갔다. 逢者必離의 수레바퀴라고 할까. 人生은 거저 사흘동안의 행동통일도 세월의 흐름위에 떠도는 한떨기 꽃과 같이 사라지고 말았다.

이에 그 아쉬움을 기록하여 후일의 추억에 기여하려고 한다.

[筆者 : 作家·本會會員]